

BOK 이슈노트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
Tel. 02-759-5223
jaeho.lee@bok.or.kr

정동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장
Tel. 02-759-4749
djeong@bok.or.kr

안병탁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조사역
Tel. 02-759-5233
abt@bok.or.kr

2025년 5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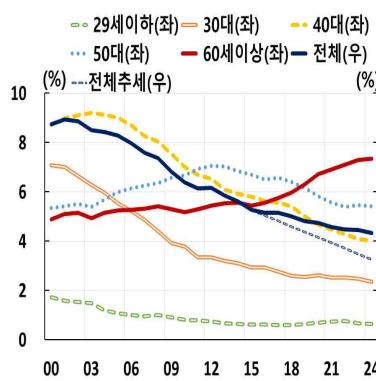
- ① 우리나라 단일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64~74년생, 954만명)가 지난 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법정은퇴연령(60세)에 도달하게 된다. 은퇴자를 위한 상용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자영업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60세 이상 자영업자: 15년 142만명 → 32년^e 248만명)되며,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감소해 온 자영업자 비중의 하락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 ②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창업준비가 더 부족하고 취약업종^{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 등}에 몰려 있어, 수익성이 더 낮고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폐업 등으로 사업을 그만둔 이후에는 임시·일용직으로 전환되면서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다.
- ③ 분석 결과, 은퇴 후 자영업자가 된 고령 근로자 상당수는 '임금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들을 연금수준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이들 중 46% 정도가 연금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긴 생계형^{연금 월79만원, 주당근로 46시간}으로 분류된다.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들은 주로 취약업종에 종사하며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후대비를 보완하기 위해 '계속근로 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높은 근로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④ 따라서 은퇴 후 자영업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거시경제 리스크가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협력하여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오삼일 등, 2025). 시뮬레이션 결과, 정년 후 60~64세에는 상용직 계속근로(55~59세 상용직 소득의 60%)를, 65~69세에는 시간제근로(55~59세 상용직 소득의 40%)를 유지할 경우의 소득 흐름은 자영업을 택할 때와 유사하였다. 자영업 진입 시 전환비용 및 초기 창업비용이 크고 소득 변동성도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령 은퇴자들은 계속근로가 보장될 경우 이전보다 소득이 낮아지더라도 상용직을 선택할 유인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⑤ 이 외에도 고령층에 맞는 상용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 대형화를 추진하거나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기업과 고령 은퇴자 간 매칭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적인 대응 방안도 고령 자영업자 누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히며,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지호 국장님, 김민식 부장님, 윤용준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I. 왜 고령 자영업자에 주목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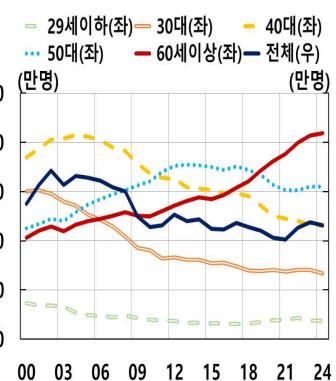
1.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구조조정이 상당수준 진행되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였다.^[그림1] 그러나 2015년부터는 60세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그 조정의 속도가 매우 완만해졌다.^[그림1, 2] 경제구조 고도화¹⁾, 자영업 내 경쟁 심화 등의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7.8%에서 2024년 19.8%까지 축소되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시기별로 차별화되는데, 2000~14년 중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연평균 0.40%p 감소한 반면 2015~24년에는 절반 수준인 연평균 0.23%p 감소에 그쳤다. 이는 여타 연령층과 달리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명에서 2024년 210만명까지 매우 빠르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아울러 전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2024년 현재 기준 37.1%까지 상승하였다.^[그림3]

[그림 1] 연령별 자영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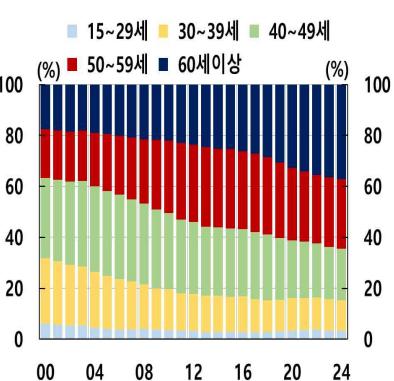
주: 1)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그림 2] 연령별 자영업자 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그림 3]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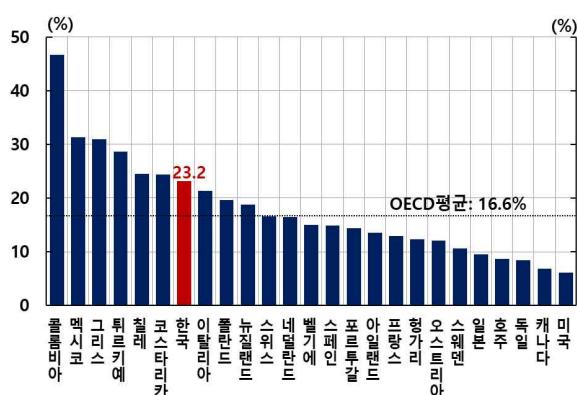


주: 1) 전체 자영업자 수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경제규모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그림4]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7번째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우리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6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5개국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다.^[그림5] 아울러 OECD 회원국의 대다수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일수록 제조업·서비스업 대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1) 금재호 등(2006)은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다.

[그림 4] OECD 회원국 자영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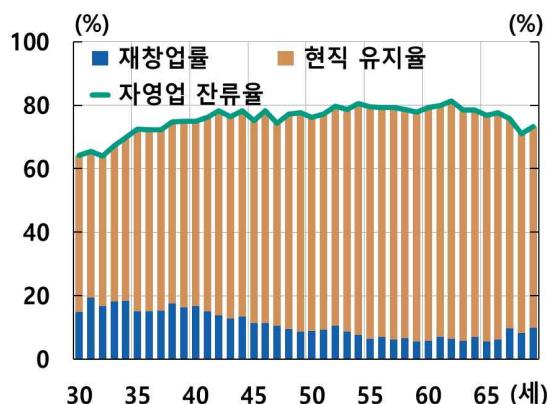
[그림 5] OECD 회원국 자영업자 비중과 명목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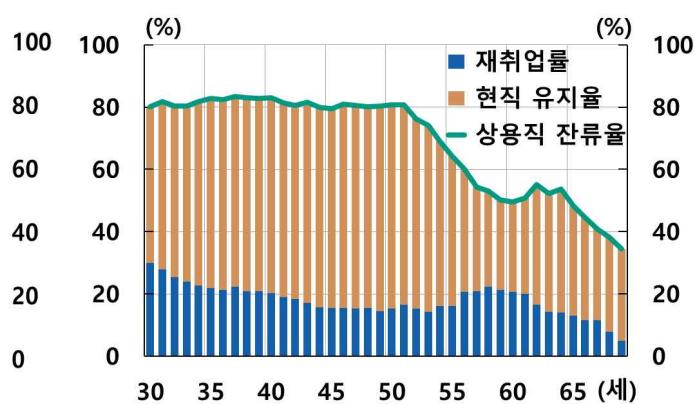
주: 1) 2023년 기준 2) OECD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에 포함함에 따라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과 상이
자료: OECD

3. 기존 고령 자영업자들 대다수는 임금직 일자리로 옮기기보다 현직을 유지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¹⁾ 이에 더해 향후 10년간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순차적으로 법정은퇴연령(60세)에 본격 진입²⁾ 유입 함에 따라 앞으로도 고령 자영업자 수는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³⁾ 먼저 50대 중반 ~ 60대 초반 자영업자 중에서 약 80%는 특정 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에도 상용·임시일용직 등으로 전환하기보다 여전히 자영업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와 대조적으로 상용근로 잔류율은 50대 초반까지 80% 수준을 유지하다, 그 이후로는 정년임박 등의 이유로 빠르게 하락하였다.⁵⁾

[그림 6] 연령별 자영업 잔류율 및 현직 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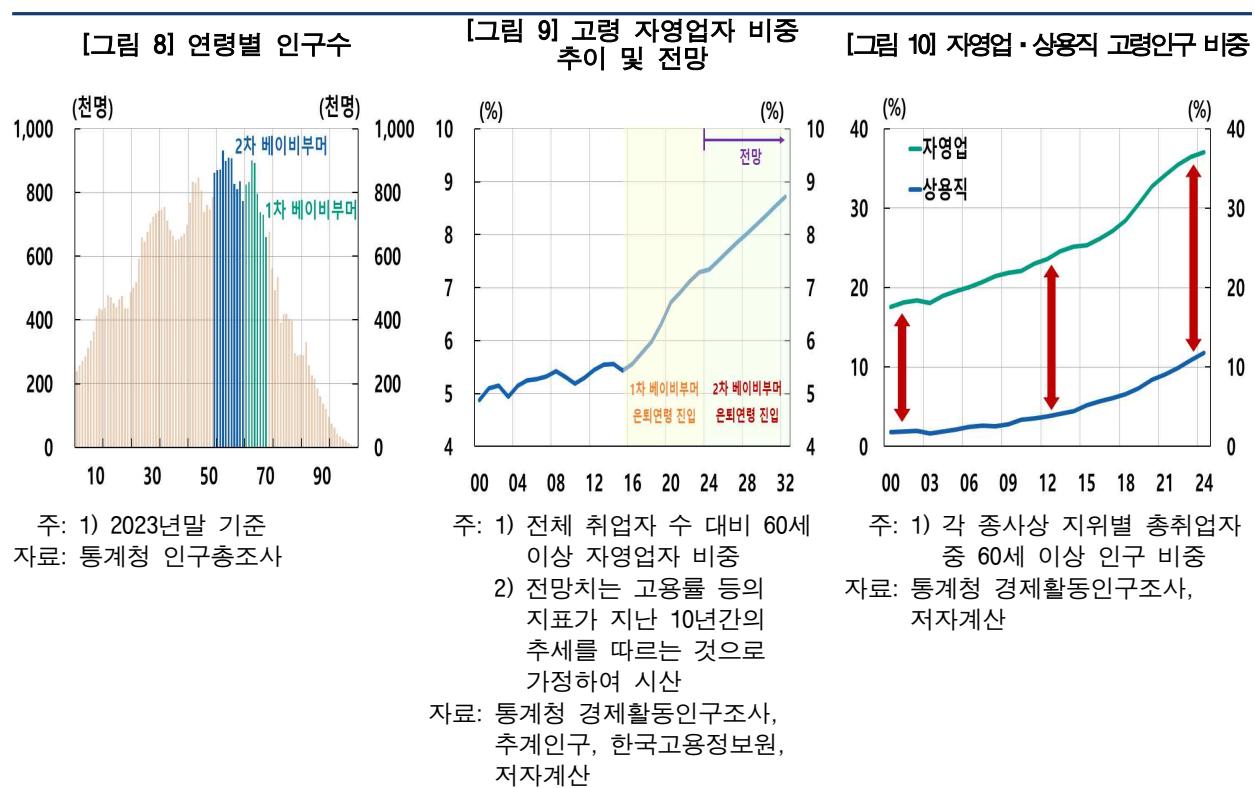
[그림 7] 연령별 상용근로 잔류율 및 현직 유지율



주: 1) 자영업(상용직) 잔류율은 각 연령대의 자영업자(상용근로자)가 특정 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도 자영업(상용근로)에 종사하는 비율
2) 현직 유지율은 자영업 내에서도 재창업하지 않고 동일 직업(상용직의 경우 동일 직업 내 상용근로)을 유지하는 비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저자계산

- 2) 2차 베이비부머는 1964~74년생으로 총 954만명(총인구 대비 18.6%)이며, 2024~34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 할 예정이다. 한편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 705만명, 13.7%)는 2023년을 기점으로 모두 은퇴연령에 진입하였다.
- 3) 예를 들어 근로자 10명이 2014년에는 모두 자영업자였으나, 2019년에는 8명만 계속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자영업자 잔류율은 80%이다.
- 4) 한요셉(2020), 이병희(2012) 등도 고령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2015년부터 1차 베이비부머 세대_{705만명}의 본격적인 은퇴[그림8]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고령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9, 10] 앞으로는 우리나라 단일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_{954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_{142만명(전체 취업자대비 비중, 5.4%)}보다 약 106만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 수의 약 9%인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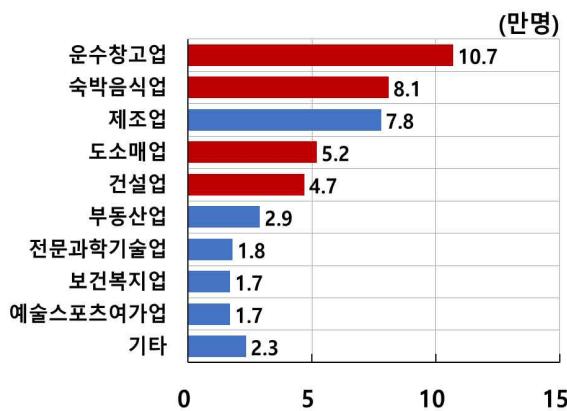


⇒ 다음에서는 고령 자영업자가 증가할 경우 우리 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해 살펴본 후, 고령층이 재취업 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동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II.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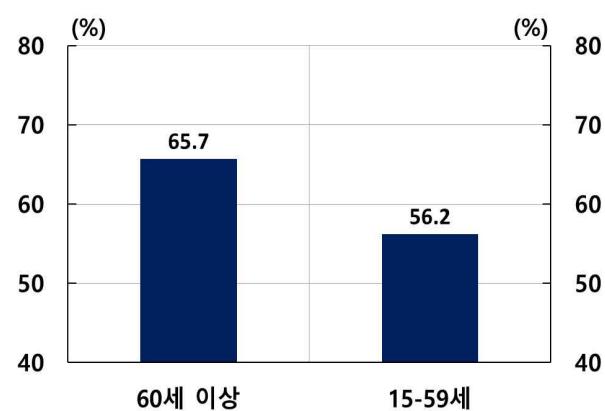
4. 고령 자영업자들은 ①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하고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②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 수익성이 낮고, ③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다.
5. 먼저 지난 10년간 고령 자영업자(농림어업 제외)는 47만명 증가하였는데, 이 중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에서 29만명이 늘어났다.^[그림11] 그리고 연령별·업종별 종사자 비중^{농림어업 제외}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자영업자 중 65.7%가 이 같은 취약업종들에 종사하고 있어 15~59세 56.2%보다 경기변동 등에 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림12]

[그림 11] 지난 10년간 고령 자영업자
업종별 증가 규모



주: 1) 60세 이상 자영업자 기준
2) 2014년 대비 2024년 증가 규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그림 12] 연령별 자영업자 취약업종 종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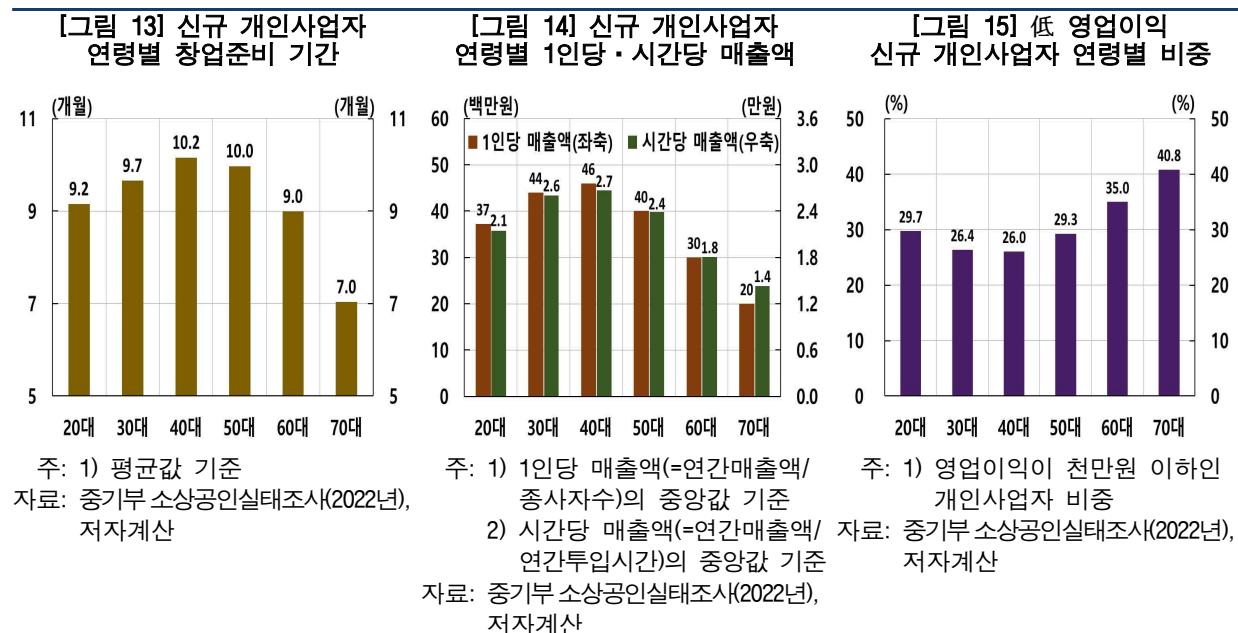


주: 1) 2024년 기준
2) 자영업 종사자 중 운수창고, 숙박음식, 도소매, 건설업 종사 비중(농림어업은 계산 시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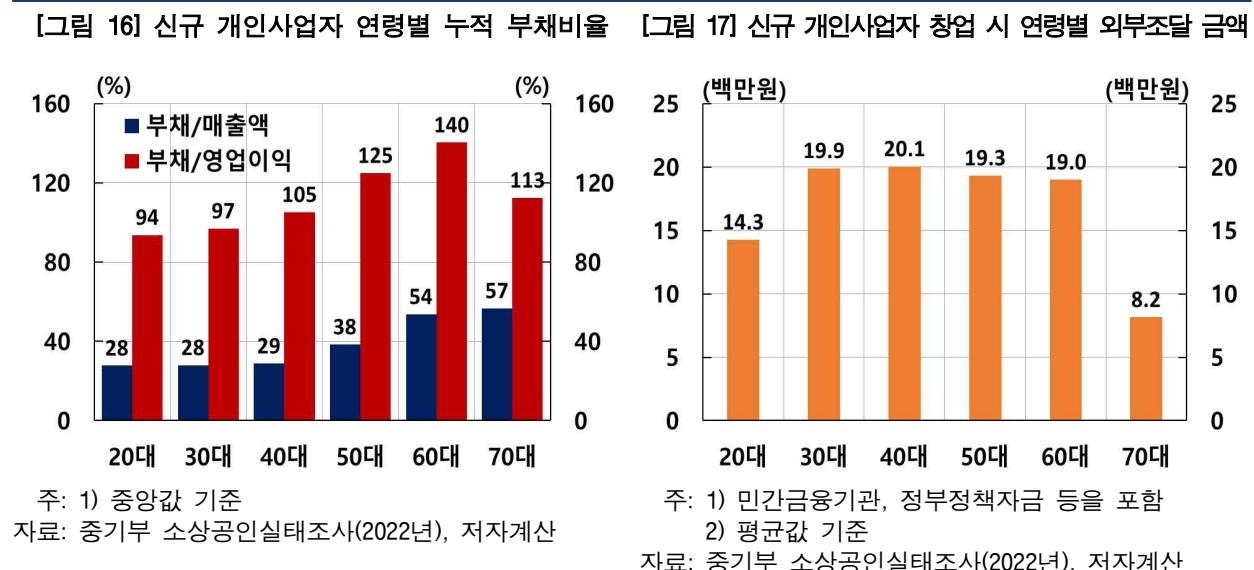
6. 60대 신규 자영업자는 여타 연령대에 비해 창업준비가 부족하며, 창업 이후의 생산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소상공인실태조사(2022년)를 이용하여 ①창업직전 임금근로자였다가, ②처음으로 창업한 후, ③3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개인사업자5)의 연령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 60대의 경우 창업준비 기간은 평균 9개월로서 여타 연령대보다 낮았으며,⁶⁾^[그림13]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연간매출액/총사자수)도 3천만원에 불과하여 20~50대의 생산성을 크게 하회하였다.^[그림14] 또 다른 생산

- 5) 본고에서는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간 개념 차이가 크지 않은 점(사업자 등록여부가 주요 차이)을 고려하여 두 용어를 혼용하였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간 자세한 차이는 “<참고1>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정의”에서 설명하였다.
- 6) 분석업종을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으로 한정하면 준비기간(평균)은 20대 8.9개월, 30대 8.4개월, 40대 9.8개월, 50대 10.5개월, 60대 8.5개월, 70대 7.4개월로 나타났다. 다만 업종을 제한함에 따라 표본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성 지표인 시간당 매출액(연간매출액/연간투입시간)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경쟁,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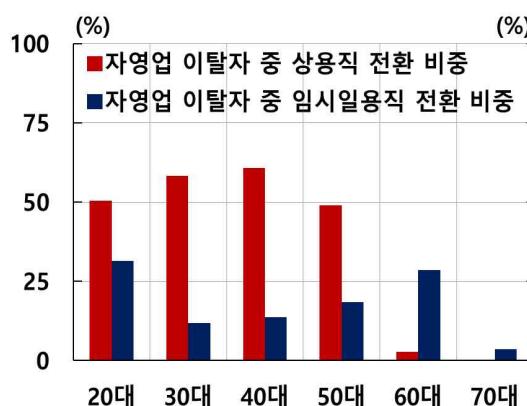


7.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창업 후 누적 부채비율도 여타 연령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그림16] 60대 신규 개인사업자의 창업 시 외부조달금액(금융기관, 정책자금 등)은 30~50대와 비슷한 수준이나,[그림17] 이들의 창업 후 누적된 부채의 비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대비)은 여타 연령대보다 매우 높았다.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60대 신규 자영업자들이 저생산성 등으로 매출액·영업이익이 낮고, 이로 인해 운영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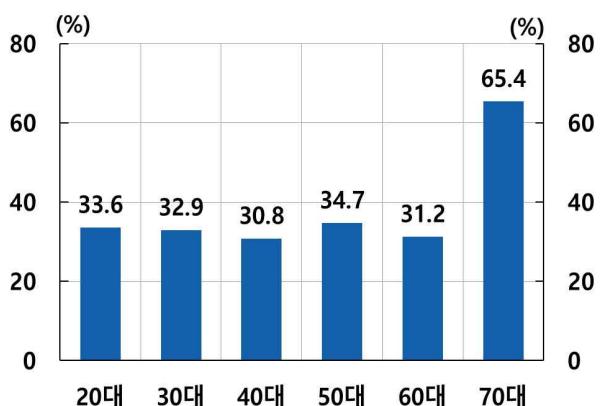
8. 한편 60대 자영업자가 폐업 등으로 일을 그만둔 이후에는 상당수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전환되었는데,[그림18] 이는 고령층이 자영업에서 실패할 경우 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60대 신규 자영업자^{진입 3년 이내의} 31%는 일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에 자영업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50대의 신규 자영업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⁷⁾[그림19] 그러나 자영업에서 이탈한 20~50대 중에서 50% 이상은 상용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반면, 60대 자영업 이탈자들의 상당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얻는 데 그치거나 노동시장을 아예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연령별 자영업 → 상용직 · 임시일용직 전환 비중



주: 1) 자영업 진입 3년 이내인 자영업자의 5년 후
자영업 이탈자 중 상용직 · 임시일용직 전환 비중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저자계산

[그림 19] 연령별 자영업 이탈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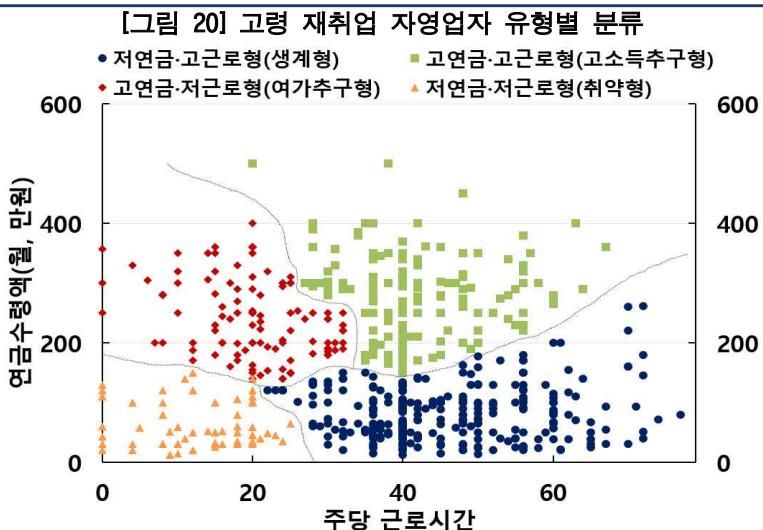


주: 1) 자영업 진입 3년 이내인 자영업자의 5년 후
자영업 이탈자 비중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저자계산

7) 임성희 · 김진옥(2021)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 창업 사업체의 연령층별 생존시간(중위수 기준)은 청년층(35세 미만) 2.3년, 중년층(35~49세) 2.9년, 장년층(50~64세) 3.1년, 노년층(65세 이상) 2.9년으로 나타났다.

III. 고령 재취업자⁸⁾들은 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⁹⁾

9. 고령 자영업자의 낮은 생산성, 높은 부채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거시경제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를 위해 고령층이 임금근로에서 은퇴한 후 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 동기를 먼저 분석해 보았다.
10. 고령층이 재취업 시 자영업에 진입하는 동기는 개인별로 다른데, 이들을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연금소득과 근로시간을 기준¹⁰⁾으로 분류하면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그림20, 21] 먼저 저연금·고근로형(이하 ‘생계형’) 전체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의 46%를 차지은 노후대비가 부족해 생계를 위해 많은 근로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형이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79만원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46시간이었다.^[표1] 고연금·고근로형(이하 ‘고소득추구형’) 비중 24%은 연금소득이 높지만 기업가정신 발현 또는 더 많은 소득추구 등의 이유로 장시간 일하고 있는 유형이며, 반대로 고연금·저근로형(이하 ‘여가추구형’) 비중 17%은 높은 연금소득을 바탕으로 적게 일하면서 노동과 여가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연금·저근로형(이하 ‘취약형’) 비중 13%은 연금수령액이 고연금자들의 25~28%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주당 근로시간은 여가추구형보다도 낮은 13시간에 그쳤다.



주: 1) 점선은 비지도학습 군집분석에 의해 도출된 4개 집단을 구분. 군집분석은 계층군집 분석인 Ward's linkage에 따른 것으로, 4개의 집단 개수는 복수의 지표(pseudo-F 등)를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집단분류를 보인 결과

2) Y축 연금수령액은 공적·사적 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의 월평균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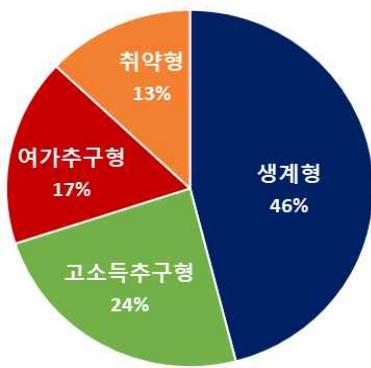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8) 2020~24년 마이크로데이터(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고령 재취업자를 ①60세 이상, ②가장 오랜 일자리에서 50세 이후에 은퇴한 후, ③현재 가장 오랜 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로 정의하였다. 이들 중 33.9%는 상용직에, 45.2%는 임시·일용직에, 18.3%는 자영업에, 2.7%는 무급가족종사직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III 장에서는 고령 재취업자 중에서도 임금근로에서 비임금근로(자영업)로 전환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0) 데이터의 한계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고령층의 자산,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림 21]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유형별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표 1]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유형별 연금수령액 및 근로시간

유형별 평균	연금수령액 (월, 만원)	주당 근로시간
생계형	79.3	45.6
고소득추구형	267.9	40.9
여가추구형	236.8	19.8
취약형	66.9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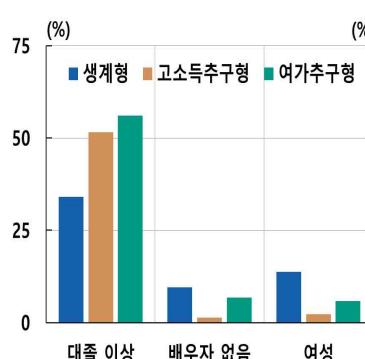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11. 근로의지, 종사업종 등의 경제적 특성[그림22]으로 판단컨대, 고용 측면에서의 정책

적 지원은 주로 생계형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먼저 생계형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독신(여성) 비중이 높으며, 전일제 형태로 장래근로를 희망하고 있는데, 대부분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취약성으로 높은 근로의지를 보이는 생계형을 고용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반해 고소득추구형과 여가추구형은 모두 학력수준이 높으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다만 여가추구형은 상당수가 장래근로를 희망하지 않고 원하더라도 시간제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추구형은 생계형보다는 덜하지만 자발적 근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형은 노후대비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문제,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노동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유형으로 고용정책보다는 복지정책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 따라 본고의 분석에서는 동 유형을 제외하였다.

[그림 22]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유형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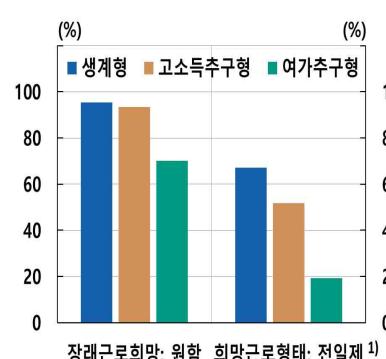
가. 인구사회 특성



주: 1) 각 인구사회 특성 항목별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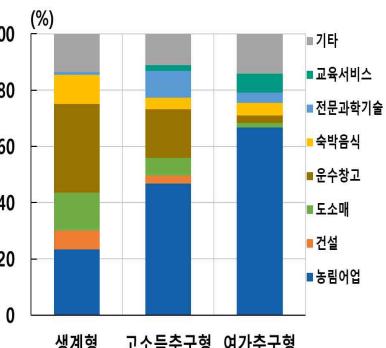
나. 장래 근로희망 여부 및 희망 근로형태



주: 1) 전일제, 시간제 근로 중 전일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를 선호하는 응답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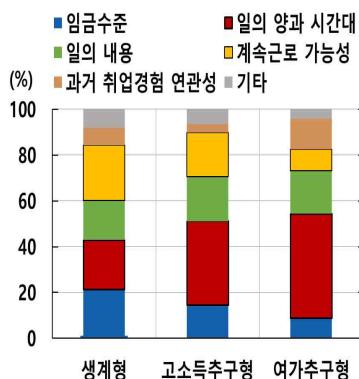
다. 종사업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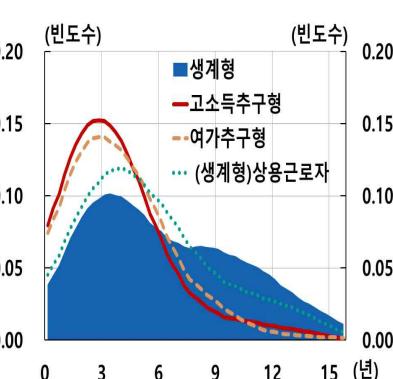
12. 생계형은 일자리 선택에 있어 '계속근로 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영업 선택의 주된 이유가 근로지속성을 유추할 수 있다.[그림23] 그러나 고소득추구형과 여가추구형은 높은 근로소득의 축적 등을 통한 양호한 노후 대비로 다소 여유로운 '일의 양과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는 여타 유형 그리고 생계형에 상응하는 고령 상용근로자에 비해 퇴직 후 근로연수가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24] 이같이 고령층이 계속근로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점은 주요국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령 자영업의 근로지속성이 더 강한 경우 경제 내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양(陽)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그림25]

[그림 23]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유형별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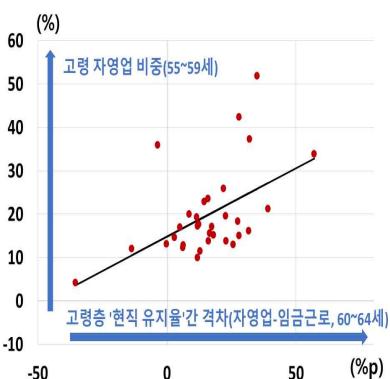
[그림 24]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유형별 퇴직 후 근로연수



주: 1) '가장 오랜 일자리' 퇴직 후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점까지의 경과연수 분포를 커널밀도함수로 추정
2) 생계형 상용근로자는 생계형 자영업자에 상응하는 주당 근로시간과 연금수령액을 보유한 고령 재취업 상용근로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그림 25] 주요국 고령 자영업 비중과 고령 자영업 근로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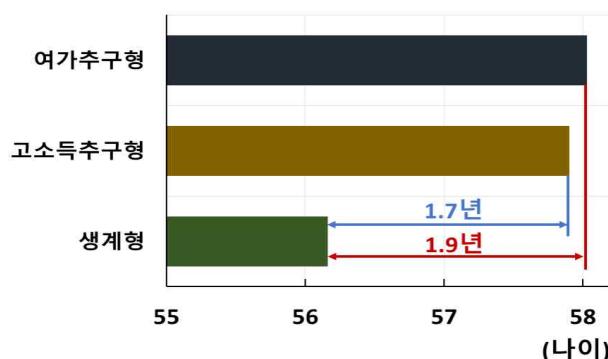


주: 1) 고령 자영업 비중은 전체 55~59세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 현직 유지율은 60~64세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중 5년 이상 근로한 인원을 5년 전 55~59세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전체 인원으로 나누어 계산

자료: OECD,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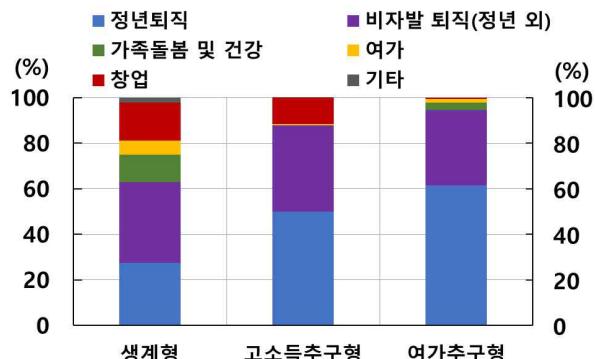
13. 퇴직행태를 살펴보면 '계속근로 가능성'을 중시하는 생계형은 여타 유형과는 달리 자영업 진입 등의 이유로 비교적 이른 시점에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퇴직시점을 비교해 보면 생계형의 경우 고소득추구형·여가추구형보다 약 2년 정도 먼저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26] 고령 자영업자의 유형별 퇴직사유를 보아도 생계형은 정년퇴직으로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창업 비중이 높았는데, 고소득추구형과 여가추구형의 경우에는 정년퇴직 비중이 가장 높았다.[그림27]

[그림 26]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유형별 평균 퇴직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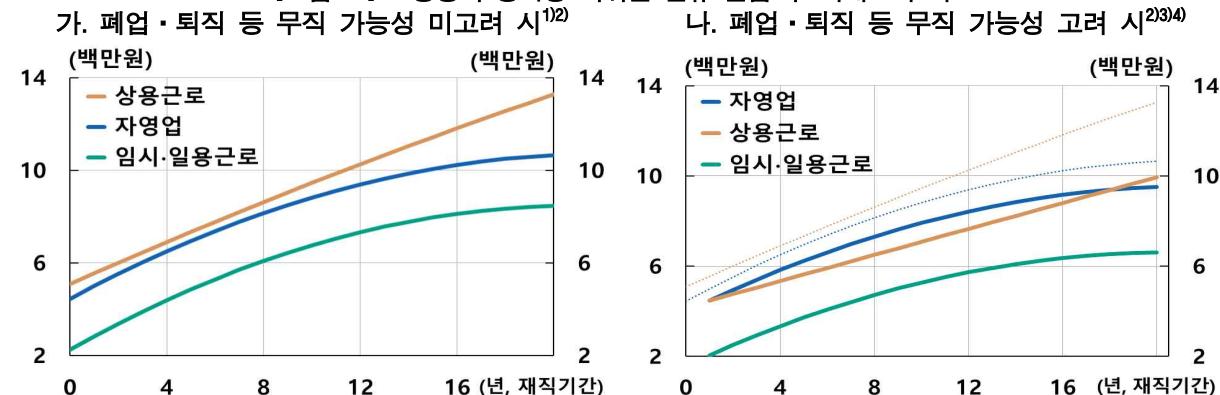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그림 27]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유형별 퇴직사유



14. 소득함수(Mincer earnings function)를 이용한 기대소득 분석을 통해서도 고령층이 재취업 시 계획근로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¹¹⁾ 기대소득을 추정해 보면 고령층은 자영업으로 재취업 시 상용근로에 임하는 것보다 기대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28 가] 이는 자영업 선택에 있어 비금전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¹²⁾ 기대소득을 다시 폐업·퇴직 가능성을 감안하여 재추정해 보면 고령층의 자영업 기대소득이 상용근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 [그림28 나] 이는 고령층이 상용직에서보다 자영업에서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한 결과로 판단된다. 즉 계획근로 가능성이 비금전적 유인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8] 고령층의 종사상 지위별 신규 진입 후 기대소득 비교



주: 1) 소득함수를 이용하여 고령층(60세 이상)의 노동시장 경력 및 현직 재직기간에 따른 기대소득(Y_t^e)을 추정
2) 해당 소득은 노동경력 및 재직기간 증가에 따른 기대소득 추이를 보기 위한 것으로 성별, 교육수준 등 여타 통제변수의 효과를 제외(변수값 0 설정)한 금액임에 따라 절대적 수준보다는 상대적 비교에 적절
3) 폐업·퇴직 등 무직화 가능성을 고려한 오른쪽의 경우는 다음 기의 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 분석 후 Y_{t+1}^e 를 추정함으로써 다음 기에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
4) 점선은 폐업·퇴직 등 무직 가능성 미고려 시 결과를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저자계산

11) 자세한 기대소득 추정 방법은 “<참고2> 기대소득 추정 방법”에서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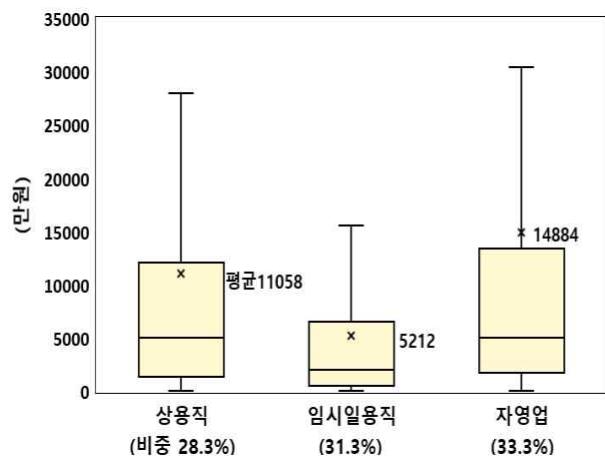
12) 60세 이상 자영업 전환자의 상용근로 시 소득은 상용직 유지자에 비해 평균 5.6백만원 높은 것으로 추정(t통계량 1.92)되는데 이는 자영업 전환자의 생산성이 상용직 유지자보다 낮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13) 김준영(2015) 역시 “주된 임금노동 일자리에서 퇴직이 불가피한 중고령 임금노동자는 다른 임금노동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것보다 자영업 창업을 하는 것이 적어도 단기적 소득유지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주장하였다.

IV.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15.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 본격화, 기존 자영업자들의 높은 현직 유지율 등으로 향후 고령 자영업자 수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낮은 생산성, 특정 업종에서의 과다경쟁 노출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가구의 취약성뿐 아니라 거시경제 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령층이 정년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같은 고령층이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부채 수준이 낮아 금융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이다.^[그림29] 아울러 고령 자영업자는 취약업종(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 고령층을 상용직으로 유도할 경우 경기 변동성도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팬데믹 충격이 있었던 2020년과 누적된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내수부진을 겪었던 2024년에 고령층에서의 상용직-자영업 간 소득격차가 더 확대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고령 자영업자들이 경기변동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그림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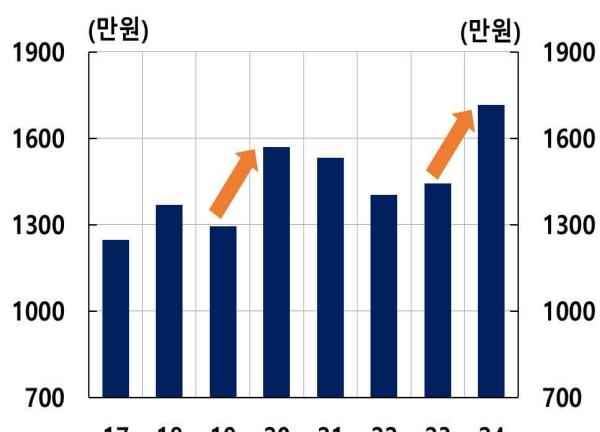
[그림 29] 고령층 종사상 지위별 금융부채 분포



주: 1) 2024년 기준
2) 60세 이상 가구주 기준
3) 금융부채가 0인 경우는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그림 30] 고령층 상용직-자영업 소득격차



주: 1) 처분가능소득(중앙값) 기준
2) 60세 이상 가구주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1. 고령층 재취업 시 안정적인 임금근로 유도 방안

16.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이 은퇴 이후 자영업을 택하는 것은 자영업이 임금근로보다 '계속근로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7. [①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고령층이 기존 상용직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오삼일 등(2025)은 초기에는 정부의 보조금과 같은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 확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방안을 바람직한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¹⁴⁾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2006년부터 고령자 고용 및 취업 확보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였고 그 대상과 나이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다.^[표2]

[표 2]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내용 및 추진 상황

주요 개정 내용	연도별 개정 추진 상황	
▶ 기초연금 지급개시연령인 65세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① 정년연장, ② 계속고용제도(노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 도입, ③ 정년제도 폐지 중 택일토록 의무화	2000년	65세까지 고용확보 노력 의무화
	2006년	65세까지 고용확보 의무화 (대상자 한정)
	2013년	65세까지 희망자 전원 고용확보 의무화
	2020년	70세까지 고용확보 노력 의무화

자료: 한국금융연구원(2020)

18. 시나리오 분석 결과, 상용직 근로자가 60세 이후 적절한 소득조정을 동반한 계속근로가 가능하다면 소득이 이전보다 낮아지더라도 임금 일자리를 더 선호할 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나리오 I에서는 59세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한 후, 60~64세에는 상용직에서 계속근로를, 65~69세에는 상용직에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소득은 55~59세 상용직 소득에서 일정부분 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II에서는 59세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60세에 자영업으로 진입한 후 69세까지 종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상용직 잔**

14) 현재에도 퇴직 후 재고용 지원제도가 있으나 오삼일 등(2025)은 보다 많은 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류 시 소득은 60~64세에 정년 전 소득의 60%, 65~69세에 40% 정도라면 자영업 소득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그리고 자영업 선택 시 전환비용과 초기 창업비용 부담이 크고 이후 소득 변동성^[표4]도 높아서 상용직에서 계속근로가 보장된다면 상용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시나리오별 고령자 연소득 흐름

55~59세	정년 후 경로	60~64세	65~69세
상용직 소득 ¹⁾ 5,090만원	①상용직 잔류	(정년 전 소득 70%) 3,563만원	(정년 전 소득 50%) 2,545만원
		(정년 전 소득 60%) 3,054만원	(정년 전 소득 40%) 2,036만원
		(정년 전 소득 50%) 2,545만원	(정년 전 소득 30%) 1,527만원
	②자영업 진입	자영업 소득 ¹⁾ 2,835만원	자영업 소득 ¹⁾ 2,067만원

주: 1)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의 해당 연령대 가구주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중앙값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저자계산

[표 4] 상용직·자영업 연소득 변동성

유형	연소득 표준편차
60세 이후 상용직	238만원
60세 이후 자영업	470만원

주: 1) 연소득 변동성은 개인의
종사상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소득 시계열의
표준편차 중앙값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저자계산

19. [② 서비스업 대형화] 고령 자영업자가 다수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임금근로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서비스업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와 그에 따른 대형화는 다수의 자영업 일자리를 임금근로로 전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인한 서비스 교역화로 글로벌 경쟁 압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성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비스업 변화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0. [③ 지방기업과의 매칭] 임금근로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과 고령 근로자 간 매칭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¹⁵⁾ 결과,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응답 대상 기업의 51%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상당한 인적자본을 쌓은 고령층 인력의 지방기업 매칭은 고령층을 자영업이 아닌 임금근로로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도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15) 「최근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인식」, 2022년 지방소재 5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21. [④ 산업구조 변화 대응] 고령층 재취업 시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교육을 통해 기업의 고령층 고용에 대한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령층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은 고령화와 기술발전(자동화·AI 등)을 감안한 인력의 부문 간 전환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현재 생계형 자영업자가 진입하는 업종에는 상당한 쏠림이 존재하고 이를 업종이 경기에 민감하며, 미래 인력수요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우리 경제의 구조가 기술발전 등으로 빠른 변화에 놓여 있는 만큼 노동시장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유연한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현재 은퇴연령에 진입하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인적자본, IT활용 능력이 양호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⁶⁾

2. 고령 자영업자 지원 방안

22. 한편, 은퇴자들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들이 이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3. [① 퇴직준비 지원 강화]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는 늦은 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자영업으로 진입하여 경쟁에서 뒤처지기 쉬운 만큼, 고령층이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현 직업과 연관된 분야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겠다. 고령층이 퇴직 후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소득절벽 등으로 인해 준비가 다소 부족하고 그간 경험이 없는 분야로 진입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고령층이 그동안 쌓은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진입을 유도하되 이에 대한 준비를 일찍부터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¹⁷⁾ 현재에도 1,000명 이상을 고용한 대기업은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진로설계, 취업알선 등)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¹⁸⁾가 있는데,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이른 시점부터 창업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16) 이재호 · 강영관 · 조윤해(2024) 참조

17) 문상균 · 박세정(2020)은 동종 산업 경력이 자영업 이탈 위험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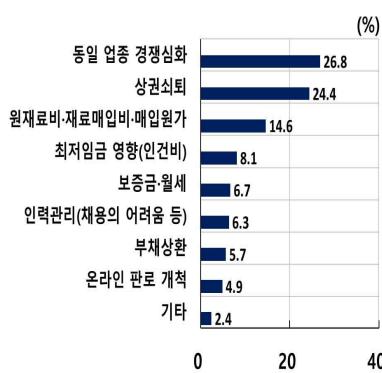
18)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란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 · 창업 교육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출처: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2024.2월)

24. [② 과도한 경쟁 완화]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의 경우 상당수가 진입장벽이 낮은 취약업종에 몰려 과도한 경쟁이 유발됨에 따라 이러한 진입 과잉을 완화할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그림31] 이를 위해서는 창업 컨설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령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 또는 업종의 포화 여부를 사전에 경고하고, 시장 수요 및 경쟁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준다면 지나친 경쟁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쟁과열 업종(예: 카페, 치킨집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전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5. [③ 비용부담 경감] 재료비, 임대료 등 자영업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그림32] 비용부담 경감은 거시적으로 물가안정이 전제되어야겠으나, 미시적으로도 공동구매 플랫폼을 활용한 자영업자들의 공동구매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자영업자 간 직접 거래 유도(예: 온라인 직거래)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6. [④ 취약 자영업자 지원]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충격에 보다 민감하고, 자영업 진입 후 다시 상용직 전환도 어려운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자영업 영위를 위한 자금·세제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32] 다만 자영업의 경우 소득5분위배율이 상용직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지원정책은 취약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그림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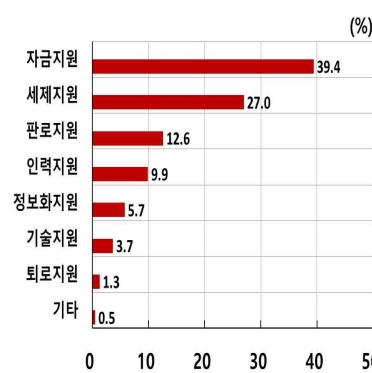
[그림 31] 고령 신규 개인사업자 주요 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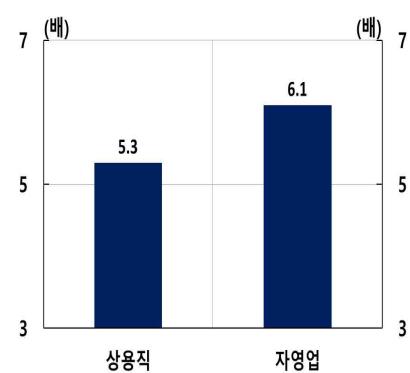
주: 1) 창업직전 임금근로자였다가 처음 사업체를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개인사업자 중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
2) 복수응답(2가지)을 통합하여 비중 산출

자료: 중기부 소상공인실태조사(2022년)

[그림 32] 고령 신규 개인사업자 선호 정책



[그림 33] 고령 자영업 · 상용직 소득5분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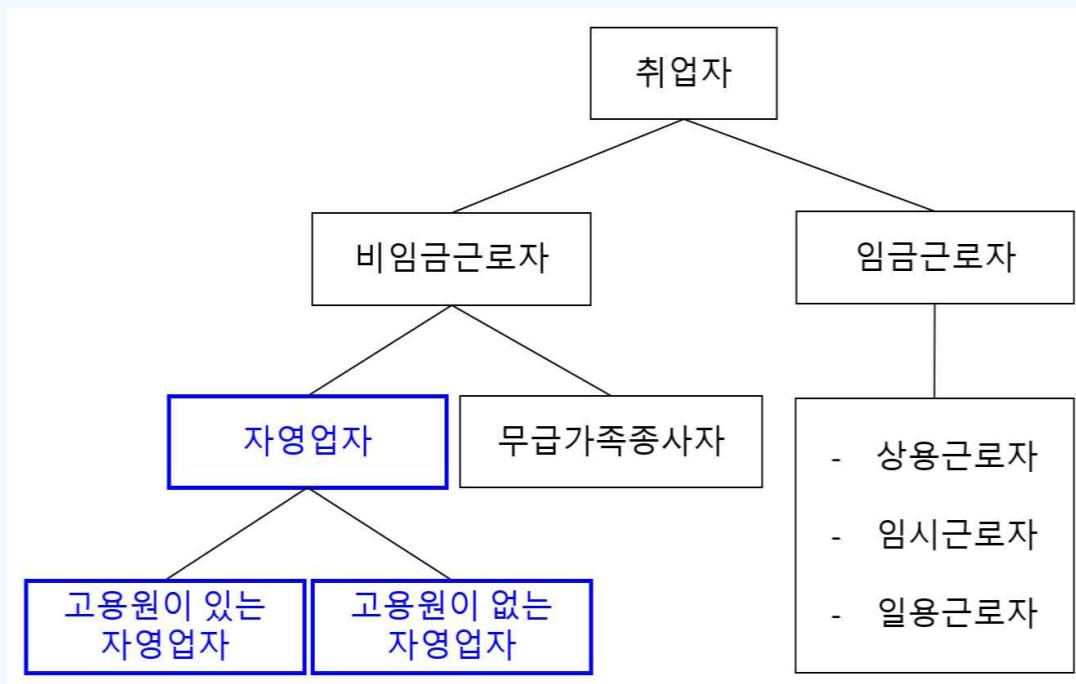
주: 1) 처분가능소득 기준
2) 60세 이상 가구주 기준
3) 소득5분위배율 = 5분위 소득 중앙값 / 1분위 소득 중앙값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년)

19) 남윤미(2017)는 자영업 폐업률이 동일 행정구역 내 동종업체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과잉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 1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정의

- 본고에서는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함에 따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 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포괄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OECD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각종 통계를 발표
 - * 무급가족종사자: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기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함

취업자 분류



- 한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에서 말하는 자영업자와 유사한 개념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가 주요 차이

참고 2 기대소득 추정 방법

- 한국노동패널 1~2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행연구(Hamilton 2000)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함수(Mincer earnings function²⁰⁾)를 추정

$$\text{세전소득} = \text{고령여부} \times \text{종사상지위} \times (LME + LME^2 + TNE + TNE^2 + \text{성별} + \text{교육수준} + \text{지역} + \text{결혼여부} + \text{건강상태}) + \text{출생년도}$$

- LME는 노동시장경력, TNE는 현직 재직기간을 의미(산출방법은 아래 표 참조)

- 기대소득은 위 회귀분석 결과의 계수값과 고령_{60세 이상} 재취업자의 LME 평균이 26년 인 점을 반영한 후 TNE에 따라 산출

- 예를 들어 고령자의 자영업 진입 후 기대소득 흐름은 고령여부·종사상지위 더미변수에 해당값을 입력하고 (LME,TNE)를 (26,0), (27,1), (28,3) …로 설정하여 산출
- 종사상지위별 기대소득 흐름 비교를 위해 LME와 TNE를 제외한 여타 통제변수는 0으로 가정

- 폐업, 퇴직 등 무직화 가능성을 고려한 경우는 다음 기의 세전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후 세전소득_{t+1}^e을 추정함으로써 다음 기에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

이용 데이터

데이터	설명	관련코드
세전근로·사업소득	-	p1702
고령여부	0: 60세 미만, 1: 60세 이상	p0107
종사상지위	0: 미취업, 1: 임시일용, 2: 상용, 3: 자영업, 4: 가족종사	j150
노동시장경력 (Labor Market Experience)	만나이 - Min(직장시작나이) - 휴직기간	p0107 j001~j003 p0201
현직 재직기간(Tenure)	만나이 - 현직장시작나이	p0107 j001~j003
성별	1: 남자, 2: 여자	p0101
교육수준	1: 미취학 ~ 9: 대학원박사	p0110
지역	1: 서울 ~ 19: 세종	p0121
결혼여부	0: 미혼, 1: 기혼	p5501
건강상태	0: 나쁨, 1: 좋음	p6101
출생년도	-	p0104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 Mincer(1974) 참조

참고문헌

- 금재호·윤미례·조준모·최강식. (2006).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정책연구, 2006-10
- 김준영. (2015). 중고령 남성 임금노동자의 자영업 이행과 근로소득의 변화. 산업노동연구, 제21권 제2호
- 남윤미. (2017).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BOK 경제연구, 제2017-5호
- 문상균·박세정 (2020). 중고령층 자영업 이탈 요인 분석: 자영업 이탈 이유를 중심으로. 노동경제 논집, 제43권 제3호.
- 오삼일·채민석·한진수·장수정·김대일. (2025).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5-8호
- 이병희. (2012). 자영업 구조조정과 임근근로 전환의 노동시장 성과.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1호
- 이재호·강영관·조윤해. (2024).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BOK 이슈노트, 제2024-17호
- 임성희·김진옥. (2021). 개인 창업사업체 생존분석: 2010~2018 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연구, 제26권 제2호
- 한국금융연구원. (2020). 일본의 70세 고용 연장 추진 배경과 시사점. 금융브리프, 제29권 제14호
- 한요셉. (2020). 생애주기별 자영업 선택과 동기. KDI 연구보고서, 2020-06
- マイクロデータ 통합서비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https://mdis.kostat.go.kr>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https://kli.re.kr/klips>
- Hamilton, B. H. (2000). Does Entrepreneurship Pa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turns to Self-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3), 441-662
- Mincer, Jacob.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OECD.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